

연탄 한 장

연탄의 모든 것

연탄은 무연탄으로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연료이다. 보통 무연탄에 석회, 해조, 진흙 등을 섞어 굳혀서 만들며, 연소를 돕기 위해 상하로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탄은 지름이 158mm, 높이가 152mm, 무게는 약 4.5kg이다. 한국 산업표준규격에 의하면, 연탄의 발열량은 4,500kcal/kg 이상 되어야 하고, 3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연탄의 역사

연탄은 일본을 통해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올림픽이 열렸고, 주님의교회가 탄생했던 1988년만 해도 전국 가정의 78%가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했다. 지금은 거의 석유와 가스가 주 연료로 바뀌어, 2000대 이후로는 약 2% 안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부분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나, 도시 빈민촌의 난방용으로 쓰인다.

연탄의 사랑

매일 두세 차례 갈아주어야 하고, 때로는 연탄 가스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위험한 연료, 그러나 그 싼 값에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따뜻한 아랫목을 제공해 주는 착한 연료. 시인 안도현은 그의 짧은 시 <너에게 묻는다>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제 몸을 태워 온기를 주는 연탄을 빌어,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진솔하게 드러낸 시, 참 찾기 어렵다.

대림절

12월 1일은 대림절의 첫날이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리고 기다리는 절기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온 몸으로 받아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대림절의 뜻

대림절 동안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회개’와 ‘성찰’이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 또,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의 계절이어야 한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맞는 기쁨을 나누는 것도 대림절을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일 터이다.

대림절의 초

대림절 기간에는 4개의 초를 준비한다. 초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은유이다. 첫째 주에는 보라색 초, 둘째 주에는 연보라색 초, 셋째 주에는 분홍색 초, 넷째 주에는 흰색 초에 불을 붙이면서 주마다 불을 늘린다. 초의 색깔이 차츰 밝은 색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뜻한다.

대림절을 맞아 나른 연탄 한 장

제 몸을 밝혀 빛을 전하는 초, 또 제 몸을 태워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연탄. 우리가 함부로 연탄재를 찰 수 없는 이유이다. 주님의교회 섬김과 나눔에서는 대림절을 앞둔 지난 11월 16일, 거여동 개미마을에 연탄 1만 장과 함께 주님의교회 교우의 작은 사랑을 전했다.

함글함글

임시 제직회, 교회 금전 사고 경과보고

11월 27일 수요일에 후 있었던 임시 제직회에서, 사무국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약 200여 명의 제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제직회에서,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창안 장로는 지난 11월 15일 드러난 교회 금전 사고에 대한 조사 경과와 대책 방안, 11월 26

일의 임시 당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사무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1월 13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총액 678,90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이 금액을 주식선물투자로 전액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당사자들은 형사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한 후 11월 20일 임시당회를 열어 시급성과 중대성을 공감하여 속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투명하게 성도들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김창안(위원장), 박대길, 박중순, 김성구, 동현수 장로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

여 21~25일까지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6일 임시당회를 열어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26일 임시당회에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신속하게 보고함과 이 일에 대해 당회원전원이 함께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물질적인 책임까지 지기로 결의하였다. >3면에 계속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4**

참회의 마음으로 성지를 순례했던 십자군



클레르몽 교회회의에서 십자군 원정을 호소하는 교황 우르바노 2세

1095년 11월 27일, 클레몽(Clermont)의 혹심한 겨울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입주의 여지없이 모여든 사람들은 교황 어반 2세(Urban II)의 강론을 듣고 있었다. 마침 이곳에서 주교단 회의를 마친 교황은 가난한 소작농들이 대부분인 청중들 앞에서 아랍 무슬림(Muslim)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성지(聖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운동에 참가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미 이전에 십자군 운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학설이 있다. 예를 들면, 1095년 1월 이전에 이미 36명이 참석한 오톤(Autun)의 감독회의에서 십자군 운동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설과 은둔자 피터(Peter the Her-

mit)가 자신의 예루살렘 순례의 경험을 통하여 십자군 운동의 필요성을 교황에게 보고했다는 설이 있다.

교황의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구호를 복창하면서 십자군에 참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바로 그날, 수세기간 유럽과 아랍 문명권을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물고간 십자군 운동이 시

작된 것이다. 십자군 운동의 시발점이 된 어반 2세의 1095년 강론의 일부분을 소개한다.

“여러분 모두 교회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의 의로운 힘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동쪽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곤궁에 처해 있으며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여러분은 그들을 돕기 위해 빨리 나서야 합니다. 이미 들었겠지만, 투르크족과 아랍인들이 그들을 공격하였으며 루마니아 지역(비잔틴 제국)

과 지중해 동부지역을 이미 점거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영토가 빼앗기고 있고 이미 일곱 번의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으며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제국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외면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권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일반 군사이든 아니면 기사이든,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서 즉각적으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구하고 우리 형제들의 영토로부터 사악한 인종들을 몰아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불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를 위해 애쓰다가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바다이든지 아니면 육지이든지, 혹은 이방인들과의 전투중이든지,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이것을 보장합니다. 오,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인종들인지, 마귀를 숭배하는 그들은, 반드시 전능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은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고 있고, 수세기 동안 진행되면서 그 조직의 구성과 목적이 여러 차례 변동되어 왔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논의를 요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루살렘 수복을 위한 아랍과의 투쟁에서 확대되어, 스페인에 거주하는 무슬림에 대한 공격,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슬라브족, 몽골족, 심지어 로마교황의 교권에 도전하는 이단세력에 대한 군사적 공격까지 포함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1588년의 알마다(Almada, 개신교를 추종하는 영국을 징벌하기 위한 스페인의 해상공격)까지 십자군 운동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일단 예루살렘 성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십자군 운동으로 한정지어 보면 여섯 번의 중요한 십자군 원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 구체적으로 여섯 번의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Oliver Thatcher and Edgar Holmes McNeal, ed., A Source Book for Medieval History, New York: Scribner's, 1905, 513-517

이강찬 목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2

詩篇 (시편 The Book of Psalms)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길로 인도 하시는 도다.
(시편 23 : 1~3)

聖經의(성경적) 意味(의미)

구약성경 詩歌書(시가서)중의 하나이다. 히브리어로 Tehillim(讚歌)를 의미하며 영어의 Psalms는 헬라어 Psalamos에서 유래했는데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한다는 뜻이다.

시편의 5가지유형은 ①찬양의 노래 ②민족 탄식의노래 ③왕의 축하 송 ④개인 탄식의노래 ⑤개인 감사의 노래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詩(시 시. 노래 시) : “말하다.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言(말씀 언)에 “관청이나 절” 또는 “모시다”의 뜻이 있는 寺(절 사. 관청 시. 모실 시)를 결합시켜 <말씀으로 된 가르침을 관청 또는 절에서 운율을 넣어 읊조리는 것이 시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篇(책 편) : “대나무”를 뜻하는 竹(대 죽. 대죽 머리)에 “작다. 쪼개다”

의 뜻이 있는 扁(작을 편. 현판 편)을 결합시켜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글을 적고 엮은 것이 책이다>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초기 인류에게 문자를 발명하여 전하거나 남기고 싶은 강한욕구가 있었지만 마땅히 적어 둘 곳이 없었다. 따라서 기록문화는 암각 또는 石片(석편) → 松板(송판) → 대쪽을 엮은 竹簡(죽간) → 비단이나 천 → 종이로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함글함글**

‘불편’은 하나님이 주신 복

주차문제를 통해 돌아본 우리의 삶

차량안내부에서는 12월 중순부터 교회차량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은 입구에서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새삼스럽게 주차스티커 단속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1~2개월 사이에 차량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한 입지에 있는 우리 교회로서, 차량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다. 주차를 통해 본 우리의 삶, ‘불편’은 때로 건강하다.



12월 중순부터 출입 제한

12월 중순부터 교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

“출석 교인 수를 보면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출석교인 수보다 차량 숫자가 늘고 있어, 상당 부분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출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13년째 봉사하고 있고, 올해 주차안내부 팀장을 맡아 봉사중인 황남호 안수집사의 말이다. 현재 주차안내부에는 32명이 봉사중이다.

주차와 관련된 낯선 풍경

주님의교회 주차 대수는 주일 평균 1200~1300대 수준이고 특히 2, 3부 예배에 300대 이상이 집중적으로 주차한다. 정신학원의 넓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니, 차량 사용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정상적인 차량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이면 된다.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교인 등록과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차량의 경우, 주차안내부에서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12월 중순부터 스티커 미 부착 차량은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2~3년 들어 두드러

지는 풍경이 있다. 주차공간이 없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는 것. 특히 비가 와서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입구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주차가 편해서 주님의교회를 다닌다는 교인도 있다는 풍문이다.

대중교통에 편한 입지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님의교회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이다. 굳이 먼 환경과 자원 문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교인들이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처음 출석하는 신입 교인이거나, 어린이를 대동한 젊은 부부들이 더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을까?

‘불편’의 복을 즐기는 삶

대체로 항존직등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은 교회에 일찍 오는 경우가 많아 주차 위치도 교회 건물에 가까운 곳을 선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들이 탄 차가 운동장 끝에 주차한 뒤 땀별 길을 걸어서 오는 경우를 많이 본다. 지난 여름 주차 봉사 중 이런 사례를 목격한 장로 피택자 한 분은 그 이후 자신의 차를 갖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

주차안내부에서는 노약자 보호를 위해 내년에는 교회건물에서 가까운 공간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 위주로 주차장을 배치하고, 중장년은 그 밖의 공간으로 배치하려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 스스로 ‘불편’의 복을 즐기는 삶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함글함글

> 1면에서 계속

대책위에서는 문제점으로 사무국 재정 관련 상시 감독체제와 수시·정기 감사의 부실 등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피해 금액의 회수 방안으로 피의자의 은닉 재산 등을 파악,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환수 되지 못하는 피해 금액은 당회원이 전액 책임지기로 임시 당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제직회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재정사고에 대해 당회원 전원이 깊이 통회하며, 도의적, 물질적 책임을 지려고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 또한 찾아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우리 개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좀 더 자세한 사항과 대책들은 공동의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다시금 투명하게 보고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기도 용어 편 5

우리 목사님께(X):주님의 종에게(O)

우리말 어법에서 듣는 사람이 최상위자일 경우, 다른 어떤 인물에게도 존대어를 쓰지 않는다. 이는 예배 자리에 동석해서 기도를 듣고 있는 회중뿐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기도 가운데 목회자를 높여 부르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하나님을 최상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주님의 종에게”라고 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X):지금 예배하고 있사오니(O)

기도를 마칠 즈음에,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이전에 이미 입례송, 묵상기도, 개회찬송, 성시교독, 신앙고백, 회중찬송 등 여러 순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도시간이 예배의 ‘처음 시간’이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순서들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의미가 된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려면 “지금 예배하고 있사오니”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X):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O)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고 하였고,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6:23)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끝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 다음호부터는 ‘예배, 예식 용어’편이 연재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생명 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2차 캠페인 열려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캠페인 2차 전시회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캠페인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신생아, 고아, 노인에게
따뜻한 털모자를 전하는
생명살리기 운동입니다

캠페인 행사기간 : 2013. 12월 ~ 2014. 12월
전시회 : **2013. 12. 1 ~ 12. 15** (교회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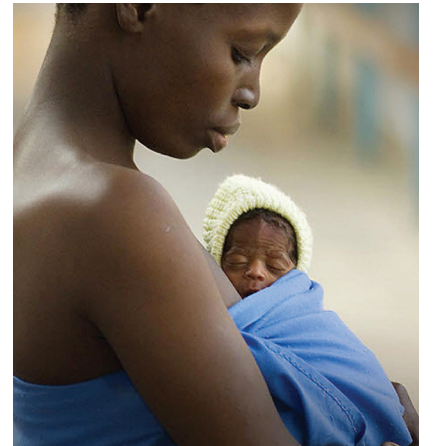
주최 : 주님의교회 늘푸른대학 / (사)섬김과나눔 후원 : 복지분과위원회 / 해외선교위원회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후원자 558명(기금 후원 190명, 뜨개질 참여자 368명)에 후원금이 10,636,000원이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실천하고자하는 이웃 사랑의 캠페인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었다. 우리들이 세웠던 목표보다 1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주님의 역사에 오직 경이로울 따름이다.

1차 캠페인 중 사랑의 털모자 후원 및 제작에 참여한 교우들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참여 인원
늘푸른대학 뜨개질반	12 명
늘푸른대학 사역자 및 학생	14 명
어와나 교사	6 명
장애인 교인	10 명
중 고등부 학생	14 명
뜨개질 후원 교인 (1차 캠페인)	558 명
계	614

1차 캠페인 이후, 캠페인 본부(늘푸른대학—(사)섬김과나눔)에서는 2013년 11월 현재 털모자 1,800개를 국내 거여-마천동 독거노인 및 주님의교회 해외선교지 3개국 그리고 Save The Children(3개국)에 후원하였다.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캠페인(2차)는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그 후로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원영 안수집사

작년 12월에 개최된 바 있는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캠페인이 올해로 2년째 진행되고 있다.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캠페인은 2012년 3월 늘푸른대학에서 기획하고 뜨개질 반 학생 10여 명이 시작한 신생아 살리기 털모자 뜨기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작년 12월 전교인들을 상대로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캠페인과 더불어 1차

전시회를 개최한 결과, 처음에는 11월 25일 하루만 전시하려고 했던 계획이 교인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12월 30일까지 6주간에 걸친 기록적인 장기 전시회로 진행되었다.

애초에 늘푸른대학에서는 털모자 뜨기 운동을 전교인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시회를 계획하였고, 털모자 뜨기 참여자 50여명, 재료후원금 100만 원을 목표로 세웠다.

일 시	후원 (국)	후원 대상자	수 량	내 용
2012. 12월	거여-마천동	중증 독거노인	200	(사)섬김과나눔
2013. 2월, 7월	케냐	신생아, 고아, 탁아소	200	해외선교위원회
2013. 7월	헝가리	집시 아동, 양로원	200	해외선교위원회
2013. 7월	키르기스스탄	고아	200	해외선교위원회
2013. 11월	잠비아,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신생아	1,000	Save The Children
		계	1,800	

복음에 빛진 자, 사랑에 빛진 자 되어

찬란했던 단풍축제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늦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 중보기도부도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떠났다. 11월 14일~15일, 곤지암에 있는 잠실교회 수양관에서 110여명의 팀원들이 모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두시 경에 도착하여 숙소를 배정받은 후 웃음제조기이신 강동혁 전도사님의 인도로 모두들 즐거운 게임과 율동의 시간을 가졌다. 강동혁 전도사님의 율동은 너무나 유연하셔서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 해맑은 모습은 보기만 하여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력을 갖고 계신다. 오후에는, 통일교육원에서 일하시며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탈북민 최영일 형제(2006년 탈북)가 "북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증과 강의를 하였다. 삼대 이상화로 인한 경직과 폐쇄, 핵개발과 굶주림, 민둥산, 겨울추위에 늘어나는 동사자들. 북한의 실상과 함께 1945년 이후 오직 김일성사회주의만을 교육받은 그들이 통일이 된다고 해서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당연히 받아들이 것인가에 대한 의문, 통일의 역군이 되어야 할 우리의 차세대들이 통일안보교육을 위해 38선을 방문하

여도 분단의 개념도, 자각도 없는 데 그런 무관심속에서 과연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등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유익하면서도 마음 아픈 강의였다. 이 강의를 통해 북한을 위해 막연한 기도를 했던 우리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2만5천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도 성급한 기독교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랑하는 친구로서의 진심을 담아 마음을 열어 서서히 다가가야 함을 깨달았다.

맛있는 식사와 휴식을 가진 후 저녁에는 대전 마중물교회 이상웅 목사님께서 "하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의 결핍은 기도의 입문일 뿐이다. 나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는지라도 그 과정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확대해가며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비결이 기도"라고 하셨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땅에 뿌려져 개인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고 열매 맺는 중보적 기도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이어서 임창진 목사님의 인도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둘째 날 아침, 개인경건의 시간과



아침식사를 마친 후 안개가 자욱하여 더욱 신비하고 아름다운 늦가을의 뒷산을 거닐며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 그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감사의 여운을 안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이상웅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변화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인생의 문제들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버지. 아시지요? 믿습니다!"로 끝내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라고 하셨다. 중보기도자들은 하

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속함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우리들은 이미 복음에 빛진 자, 사랑에 빛진 자가 되었다.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용사로 살기를 다짐하며 버스에 올랐다. 바른 중보기도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임창진 목사님과 팀원들을 위해 애쓰시는 안경희 부장권사님 그리고 스텝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김영미** 집사/중보기도부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잠언 편

- | | | |
|---|---|--|
| 1. 여호와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를 멸시하느니라 (잠1:7) | 5.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8:17) | 나 정녕히 ○○○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23:4-5) |
| 2.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3:5-6) | 6. ○○○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11:20) | 10. 너는 ○○○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27:1) |
| 3. 그를 ○○○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4:8-9) | 7.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는 ○○○을 감찰하시느니라 (잠16:2) | 11.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하게도 마옵시고 ○○○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30:8-9) |
| 4.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4:23) | 9.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 |

부르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이름은 삼열(三悅)인데, 이것은 성경인물 ‘사무엘’을 음차한 이름입니다. 사람은 이름처럼 산다고 하는데, 저도 제 이름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신앙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막연한 고민과,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생계를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저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2008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전공하던 물리학과와 대학원 진학과 교사임용이라는 두가지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라는 고민보다,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저의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고민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마침 단기선교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과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 보리라는 마음으로 단기선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고민을 가득안고 간 몽골 땅! 저는 공항에서 내려서 선교하기로 예정된 보르노르(‘갈색호수’라는 뜻)라는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몽골 땅은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마을의 정경을 훤히 내다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선교에 앞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그 땅에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을 순수하게 열망하는 선교사님들과 몽골 사람들의 모



습은 9박 10일의 단기선교 기간 동안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보르노르 마을에서의 경험은 마치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 나오는 치섬 신부가 ‘예수촌’마을을 만나서 선교에 대한 열망과 부르심을 다시 체험한 것처럼, 저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단기선교를 마치면서, 제 이름의 뜻처럼(사무엘=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나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울리는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성공과 생존을 넘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로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영혼을 울리는 체험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주님의교회 섬기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소명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 중인 청년들 가운데, 저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청년들의 영혼을 울리는 행복한 체험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삼상 3:11)”

김삼열 전도사

교회 단신

무연고자에 방한복 기증



호스피스 국립의료원 자원봉사자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극빈자와 무연고자 노숙자 환자를 위해 방한복을 기증했다.

청년부 렛츠 7기 수료식



청년부 예비리더교육 프로그램 렛츠 (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School) 7기가 훈련을 마치고 11월 24일(주일)에 수료식을 진행했다.

아빠와 함께 한 아기정원



아기정원에서는 11월 23일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빠들이 아기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게임도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북한동포돕기 방한복 수집



엄동에 고통받을 북한 동포를 위한 방한복 수집이 11월 17일과 24일 두 주일에 걸쳐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교인들의 따뜻한정이 담긴 방한복 800여 벌이 수집되었다.

‘비움’은 이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산상수훈의 여덟 가지 복 가운데 ‘공홀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다른 복과 다릅니다. ‘공홀’한 자에게는 ‘공홀’의 복이 있습니다. 이는 ‘공홀’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공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홀’은 동정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동정심’이 인간의 연민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감성이라면, ‘공홀’은 그보다 더 깊고 영속적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죄로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고 하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요 8:11)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기억하셨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라 하셔서 새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남아 있는 인간적 판단과 동정심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공홀’을 그 자리에 채워서 이로 남을 ‘공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사역일정

- | | |
|------------------------|---------------------------|
| - 12. 1(주일) 대림절 첫 주일 | - 12. 15(주일) 새생명 축제 |
| - 12. 8(주일) 정기당회 | - 12. 22(주일) 성탄 발표회 |
| - 12. 11(수) 겨자씨 인도자 종강 | - 12. 25(수) 성탄절 예배, 유아세례식 |
| | - 12. 31(화) 송구영신 예배 |